

학습 단계별 한국어 관용표현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

사와다 히로유키**

<차 례>

- I. 서론
- II. 학습 단계별 목록 선정 기준의 문제점
- III. 조사 대상 목록과 과제 내용
- IV.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도 조사 결과
- V. 결론

I. 서론

한국어 교육에서 관용표현¹⁾에 관한 연구는 국어학에서의 다양한 성과와는 달리 근래에 들어와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유덕자(1997)의 연구가 사

* 해상보안대학교 기초교육과정 준교수(hirojl@hanmail.net)

1) 본고에서는 관용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지만, 선행 연구를 언급할 때는 각 연구자가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그동안 관용어 또는 관용표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왔다. 서로 용어는 다르나 공통적으로 단어나 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관용어나 관용표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문장 형태의 속담과 같은 형태를 그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는 연구자마다 다르다. 전해영(2001)은 속담이 풍자성, 비유성, 교훈성을 갖는 반면, 관용표현은 직설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르고, 속담이 인용문의 형태를 취하는 반면, 관용표현은 문장 속에 녹아든 형태로 쓰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속담을 관용표현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으나 직설적 문맥에서 쓰이는 속담은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는데, 본고에서도 이에 따르기로 한다.

실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크게 (1)교재 분석, (2)학습 단계별 목록 선정, (3)교수 학습 모형 개발로 분류할 수 있다.

(1)에 관한 연구는 한국어 교재에 실린 관용표현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교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대부분인데, 문금현(1998)²⁾에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후에도 사모토(2002), 조윤경(2005), 권순영(2005), 송혜원(2005), 최혜령(2007), 김지혜(2006), 임혜진(2007), 이정숙(2007), 김은경(2010) 등 이와 유사한 연구가 이어져서 이 분야에서는 충분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2)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습 단계별 목록 선정에 앞서 전체 교육용 관용표현 목록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심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³⁾ 그러나 선정된 목록을 학습 단계별로 어떻게 배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목록 배열은 어떤 학습자에게 어떤 순서로 관용표현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 즉 (3)에 관한 연구에서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문금현(1998 : 213-216)에서는 5기판의 교재 총26권을 분석한 결과 첫째, 관용표현에 대한 개념이나 판단 기준이 제대로 인식되어 있지 않고, 경계에 있는 여러 광의의 관용 표현들과도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둘째, 관용표현과 속담이 구별없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 셋째, 어떤 근거로 외국인들이 배워야 할 관용표현의 목록으로 선정되었는지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 넷째, 학습 단계에 맞추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목록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다섯째, 교재에 관용표현의 제시란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3) 전혜영(2001 : 185)은 현대어 관용표현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방송 담화 자료나 일반 한국어 교과서와 신문, 잡지, 소설 등을 대상으로 여기에 나오는 관용 표현이 어떤 것인지 조사하여 그 빈도수를 파악한 다음, 빈도수에 의거하여 외국인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한국어 관용 표현의 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대로 앞으로는 한국어 관용표현 빈도 조사를 위하여 기관이나 집단의 프로젝트를 통한 광범위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현단계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그랬듯이 문금현(1996)의 조사 결과와 국제교육진흥원(2002)에서 지정한 ‘한국어 속담 100 관용어 100’등을 기초 자료로서 목록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선정된 관용표현을 학습 단계별로 배열할 때의 주된 기준은 학습자 모어의 관용표현과 한국어 관용표현의 유사 정도이다. 한국어 관용표현과 형식과 의미가 동일한 관용표현이 학습자 모어에 존재하는 것은 낮은 학습 단계로, 학습자 모어에는 존재하지 않은 한국어 관용표현은 높은 단계로 배열한다는 방식이다. 실제로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도 조사 연구를 통해서 이 기준에 대한 타당성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사에서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어휘의 난이도가 고려되지 않아서 정답률이 높은 관용표현은 구성 어휘의 난이도가 낮고, 정답률이 낮은 관용표현은 구성 어휘의 난이도가 높아서 학습자들이 유형 때문에 틀린 것인지, 아니면 어휘 자체를 몰라서 이해를 못 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인지도 조사가 기입식이 아니라 각 관용표현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피험자가 그 관용표현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에도 안다고 표시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 외에 유형화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한국어 관용표현과 형식과 의미가 동일한 관용표현’ 중에는 한국어와 학습자 모어의 어휘가 완전히 1대 1로 대응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한국어에만 있는 관용표현 중에도 학습자 모어의 용언과 대응되는 것과 학습자 모어로는 설명만 가능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어와 학습자 모어의 어휘 대응을 고려해서 유형화해야 하고, 둘째, 유형별 인지도를 실험할 때 어휘의 난이도를 통일시켜야 하고, 셋째, 학습자의 인지도를 측정할 때 선택식이 아니라 기입식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같은 어휘 수준으로 구성된 관용표현을 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관용표현의 직역과 실제 의미를 쓰게 하는 조사를 통해서 피험자가 어려워하는 유형과 그 이유에 대해 검증할 것이다.

II. 학습 단계별 목록 선정 기준의 문제점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학습 단계별 관용표현 목록을 선정한 선행 연구는 크게 특정 언어권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목록을 선정한 연구와 학습자의 언어권별로 목록을 선정한 연구로 나누어진다. 전자에 속하는 연구로서 문금현(1988), 송혜원(2005), 황주승(2005), 임혜진(2007), 박소연(2008), 김은경(2010)⁴⁾을 들 수 있는데, 학습 단계별로 목록을 배열하는 기준은 한국인의 사용 빈도, 구성 어휘의 난이도, 의미의 투명성 등이다. 이 기준들 중에서 투명성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혜진(2007)에서 이루어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얻은 결과로 사용 빈도가 높으면 투명도가 낮아도 의미의 구조가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져 매우 익숙한 표현으로 인식된다고 답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의미의 투명도는 낮지만 언어생활에서 해당 관용어의 사용빈도가 높음으로 인해 실제 투명도보다 그 정도가 더 높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송현아(2008 : 6) 역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한국인이 느끼는 투명성의 정도에 의존해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투명도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관용어는 익숙해서 투명도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으며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학습자의 언어권별로 목록을 선정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이에 속하는 연구로서 몽골인을 대상으로 한 송현아(2008),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박용배(2006), 배규범(2010), 장정정(2010), Li Shun Fu(2011),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사모토(2002), 김명춘(2008), 김애진(2009)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학습 단계별 목록을 선정할 때 투명도 대신에 한국어 관용

4) 송현아(2008 : 5)는 한국어 교재의 관용어 목록을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 목록을 선정함에 있어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그 목록들을 가지고 다시 교수 항목으로 선정하는 모순됨을 보았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 연구들 중에는 그러한 연구에 속한 연구도 있다.

표현과 학습자 모어 관용표현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송현아(2008)에서는 선정된 150개의 목록을 사용빈도, 몽골어 관용어와의 비교와 몽골인 학습자의 인지도, 관용어 구성어휘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배열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시된 몽골인의 이해도 조사는 축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를 몽골어로 번역하여 둘 사이의 상관성에 대해 ‘축자적 의미를 보고 관용적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으면 3번’, ‘쉽게 유추할 수 없지만 이해되는 것은 2번’, ‘둘 사이의 상관성을 전혀 못 느끼면 1번’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조사는 피험자의 모어로 번역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험자가 한국어로 직접 본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이 남는다.

박용배(2006)에서는 표현 영역 관용표현 100개와 이해 영역 관용표현 100개, 총 200개의 관용표현을 관용표현의 난이도와 등급별 교육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특히 초급은 중국인 학습자의 인지도를 중점적으로 초급 20개, 중급 60개, 고급 120개를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표현 영역 목록을 선정할 때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 보통으로 사용하는 표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나누어 표기하도록 하였으나, 이해 영역 목록에 대해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인지도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배규범(2010)에서는 선정된 관용어 150개를 중국인 학습자의 인지도 조사 결과와 중국 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는 관용어를 제2(20개)와 제3학기(50개)에 집중 배열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북경 내 3개 대학 총 7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관용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잘 안다, 조금 안다, 전혀 모른다’의 세 항목으로 조사하였는데, 피험자가 대상 관용어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장정정(2010)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단계별 관용표현의 목록을 중국어 관용표현과의 유사 정도, 관용표현의 난이도로서 투명성, 한국인의 사용 빈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중국어 관용표현과의 유

사 정도는 동형동의(형태와 의미가 모두 같음)는 초급, 부분동형 동의(형태는 유사하고 의미는 같음)는 중급, 이형동의(형태가 다르고 의미는 같음)는 고급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들이 실제로 ‘동형동의’보다 ‘이형동의’를 더 어려워하는지는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Li Shun Fu(2011)에서는 중국인을 위한 ‘손’과 ‘발’ 관련 관용표현의 단계별 목록을 선정하는 데 a) 관용표현의 구성 요소 어휘 등급 확인, b) 관용표현의 사전적 의미해석 확인, c) 상관어 선정, d) 상관어의 어휘 등급 확인 등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 분류를 시도하였으나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겠다.

사모토(2002)에서는 ‘한국어교육용 동사형 관용어’로서 초급 6개, 중급 34개, 고급 36개가 선정되었다. 한국어 교재에 나온 동사형 관용어에 대한 일본어 모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인지도 조사 결과가 선정의 주된 기준이 되어 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인지도 조사는 초·중·고급 각 10명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서울대, 연대, 고려대 교재에 나온 동사형 관용어 82개를 제시하여 그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표를 표시하고, 모르는 것에는 그 의미를 추측하거나 그 어휘에서 받는 느낌을 쓰게 한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아는 것에는 ○표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피험자가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에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김명춘(2008)에서는 5개의 한국어 교재에서 중복 제시된 관용표현들 20개를 교재에서 중복되는 횟수와 사용상황, 의미의 투명성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미의 투명성은 객관적인 기준이 못되며, 일본어 모어 학습자에 대한 조사 없이 학습 단계별로 배열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김애진(2009)에서는 선정된 150개의 관용어를 학습 단계별로 2급에서 5급까지 분류하였는데 그 기준은 조남호(2003)에서 제시된 ‘학습 단계별 기본 어휘 목록’(이하, ‘어휘 등급’)의 A, B, C의 세 단계 난이도와 일본어

관용어와의 유사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단계에 속하는 관용표현은 A단계 어휘들로만 구성되며, <의미와 형태가 모두 같은 관용어>에 속하는 것이고, 3단계는 A단계와 B단계의 어휘로, 또는 B단계의 어휘들로만 구성된 관용표현 중에서 <의미와 형태가 모두 같은 관용어>와 <형태가 유사하면서 의미가 같은 관용어>에 속하는 것, 4단계는 A단계와 B단계의 어휘로, 또는 B단계의 어휘들로만 구성된 관용표현 중에서 <의미는 같으나 형태가 다른 관용어>와 <한국에만 있는 관용어>에 속하는 것, 5단계는 C단계 또는 ‘어휘등급’에 제시되지 않은 어휘가 포함된 것이다. 이 연구는 단지 언어 자체의 대조 분석에 의한 것이고, 일본어 모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외에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관용표현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한 연구가 있다. 하수정(2006)에서는 한국어 기관 교재에 제시된 신체 관용어를 ‘눈, 귀, 코, 입’을 중심으로 A유형(한국어와 일본어가 형식과 의미가 동일한 유형), B유형(한국어와 일본어의 형식은 다르나 의미가 동일한 유형), C유형(한국어에는 있으나 일본어에는 없는 유형)으로 분류하여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빈도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각각 7개 관용어를 선정하여 아래의 사례와 같이 사지선다형 지필 검사를 실시하였다.

하수정(2006)에서 실시된 조사 내용의 사례

- | |
|--|
| <p>1. 수진씨는 눈이 높아서 쉽게 결혼할 사람을 선택하지 못해요. ()</p> <p>①눈이 예쁘다 (目がきれいだ) ②선택하는 기준이 까다롭다 (選ぶ基準にうるさい) ③눈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目が高いところについている) ④사람을 싫어하다 (人を嫌う)</p> |
|--|

그 결과 정답률은 A유형(87.1%)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B유형(75.5%), C유형(67.3%)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1개의 관용어의 정답률이 높은 순으로 보면 1위가 ‘귀가 아프다’(정답률 95%), 2위가 ‘입이 무겁다’(정답률 92.5%), 3위가 ‘눈이 높다’(정답률 90%)로 모두 A유형에 속한 관용

5) A는 1, 2단계에서, B는 3, 4단계, C는 5, 6단계에서 학습되어야 하는 어휘들을 나타낸다. 자세한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조남호(2003 : 1-13)를 참고할 것.

표현들이다. 한편, 정답률이 낮은 순으로 보면 ‘눈이 뒤집히다’(정답률 24.3%), ‘귀가 솔깃하다’(정답률 54.1%), ‘눈에 거슬리다’(정답률 56.4%)로 되어 있으며, ‘눈이 뒤집히다’와 ‘귀가 솔깃하다’는 C유형에, ‘눈에 거슬리다’는 B유형에 속한다. 이 결과를 보면 일본어권 학습자에게는 C유형보다 A유형에 속하는 관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쉽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어휘의 난이도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상위 1위부터 3위까지의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어휘를 보면 ‘귀, 아프다, 입, 무겁다, 눈, 높다’는 모두 앞에서 살펴본 ‘어휘등급’의 A단계 어휘에 속한다. 한편, 하위 3위까지의 관용표현 경우는 ‘눈’과 ‘귀’는 A단계 어휘지만, ‘뒤집히다, 솔깃하다, 거슬리다’는 모두 ‘어휘등급’에 제시되지 않은 어휘들이다. 즉, C단계에도 속하지 않은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단계를 결정할 때 공통적으로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 언어인 한국어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한 형태는 모어에서 목표 언어로 성공적으로 전이되어 학습하기 쉬운 부분일 것이고, 상이한 부분은 모어의 간섭을 일으켜 학습하기 어려운 분야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또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어휘의 난이도가 고려되지 않았고, 피험자가 그 관용표현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표시하는 형식으로 실험이 실시되어 있어서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어휘 자체를 몰라서 이해가 안 되었는지 어휘 자체는 알고 있으나 관용적인 의미를 몰라서 이해할 수 없었는지를 알 수 없으며, 피험자가 안다고 표시한 경우에도 피험자가 그 관용표현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어휘 수준을 통일시켜, 각 한국어 관용표현의 직역과 실제 의미를 쓰게 하여 유형별 관용표현의 인지도를 어휘의 인지도를 고려하면서 살펴볼 것이다.

III. 조사 대상 목록과 과제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관용표현과의 유사성 및 구성 어휘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학습 단계별 관용표현 목록을 제시한 김애진(2009)의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김애진(2009)에서 선정된 교육용 기본 관용어 총15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목록 중에서 ‘어휘 등급’에 제시되지 않은 어휘를 포함한 관용표현을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관용표현 교육은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어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실시되어야 효과적이는데,⁶⁾ ‘어휘 등급’에 속하지 않은 어휘는 김애진(2009 : 86)의 지적대로 한국어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어휘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김광해(2001)⁷⁾의 ‘등급별 총어휘’의 1등급(1845어) 및 2등급(4245어) 어휘인 경우에는 사용빈도가 높으므로 다시 목록에 추가하였다. 예컨대, ‘뚜껑을 열다’의 ‘뚜껑’은 ‘어휘 등급’에는 없지만, ‘등급별 총어휘’에서는 2단계에 속한다. 그 외에 이에 해당되는 관용표현으로서 ‘췌기를 박다, 물이 들다, 낮이 뜨겁다, 동이 나다, 귀가 가렵다, 깨가 쏟아지다, 한눈을 팔다’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예컨대, ‘피눈물이 나다’의 ‘피눈물’은 ‘어휘 등급’에 속하지 않지만, ‘피’와 ‘눈물’은 각각 ‘어휘 등급’의 A단계와 B단계 어휘이다. 이런 어휘는 명사를 떼어 놓고 해석해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되는 관용표현으로는 ‘눈코 뜰 새 없다, 한턱을 내다, 물거품이 되다, 콧대가 높다’ 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남은 관용표현 100개를 다음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6) 황주승(2005 : 38)에서는 관용어가 지닌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1차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관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휘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는 단계에서 해당 관용어를 가르치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김애진(2009 : 85-86)에서도 관용어 학습은 그 관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어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실시되어야 효과적인 것이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는 어휘가 포함된 관용어의 제시는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7) 김광해(2003)에서는 총 237,990의 한국어 어휘를 계량 분석하여 등급별 교육용 어휘 목록을 4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 1,845어, 2등급 4,245어, 3등급 8,358어, 4등급 103,77어를 선정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 관용표현과 학습자 모어 관용표현과의 유사성은 a) 의미와 형태가 모두 같은 관용표현, b) 형태가 유사하면서 의미가 같은 관용표현, c) 형태가 다르고 의미는 같은 관용표현, d) 한국어에만 있는 관용표현 등으로 분류된다.

a)에서는 ‘형태가 같다’고 하면서도 구성 어휘의 대응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입을 모으다’는 ‘口をそろえる’로 a)로 분류되어 있는데, ‘そろえる’도 ‘모으다’와 대응되기는 하지만 가장 사용 범위가 유사한 동사는 ‘集める’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입’과 ‘모으다’를 모두 알고 있어도 ‘口を集める’에서 ‘口をそろえる’를 연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성 어휘가 완전히 1대 1로 대응되는 것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어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각 어휘가 일본어 어휘와 1대 1로 대응되어 있으며, 대응되는 일본어 어휘를 합치면 바로 한국어 관용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관용표현이 되는 것들을 I형으로 한다. 그리고 ‘입을 모으다’처럼 한국어 어휘와 일본어 어휘가 서로 대응되기는 하지만 대응할 때 가장 사용 범위가 유사한 일본어 어휘가 아닌 것과 b)처럼 일부 어휘가 대응되는 것을 II형으로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d)처럼 한국어에만 있는 관용표현을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선행 연구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어 모어 화자는 예컨대 ‘마음을 먹다’나 ‘비행기를 태우다’와 같은 관용표현은 대응되는 일본어 관용표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 입장에서는 관용표현을 학습자 모어의 관용표현과 대응해서 이해하지 않고 모어 용언과 대응시켜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d)중에서 대응되는 일본어 관용표현은 없지만, 대응되는 일본어 동사 또는 형용사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III형으로 한다. 그리고 d) 중에는 일본어에 대응되는 관용표현뿐만 아니라 대응되는 용언도 없고 한일사전에는 설명만 되어 있는 것이 있다. 예컨대, ‘깨소금 맛이다’에 대해서 小學館『朝鮮語辭典』에서는 ‘(他人の失敗・不幸に對して)非常に痛快で氣味がよいと思うこと(남의 실패・불행에 대해 매우 통쾌하고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학습자 입장에서는 직감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c) 역시 일본

어에도 의미가 같은 관용표현이 존재하기는 하나 공통된 어휘가 없어서 일본어 관용표현과 연결하기가 어려운 것들이다. 예컨대, ‘제 눈에 안경’과 의미가 같은 관용표현으로 ‘あばたもえくぼ(마마자국도 보조개)’가 있는데, 서로 공통되는 어휘가 없어서 일본어 관용표현과 쉽게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d) 중에서 일본어에는 대응되는 관용표현뿐만 아니라 대응되는 용언이 없는 것과 c)를 합쳐서 IV형으로 한다. 각 유형에 속하는 관용표현을 어휘의 난이도별로 분류한 것이 <표 1>이다. 어휘의 난이도는 ‘어휘 등급’에 따르기로 한다.

<표 1> 유형별 관용표현

	A단계 어휘만으로 구성	A와 B단계 어휘로 구성	B단계 이상의 어휘로 구성
I형	그림의 떡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이 높다, 마음에 들다, 손이 빠르다, 입이 가뻔다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눈 감아주다, 얼굴이 두껍다, 입에 맞다, 손에 땀을 쥐다, 한잔 하다	거울로 삼다, 땅에 떨어지다, 혀를 차다, 엉덩이가 가뻔다, 골치가 아프다, 못을 박다, 썰기를 박다, 뚜껑을 열다, 물거품이 되다, 콧대가 높다, 피땀을 흘리다
II형	손을 쓰다, 손을 보다, 어깨가 무겁다, 눈에 들다, 발이 넓다, 머리를 들다, 눈에 불을 켜다, 한 배를 타다 ⁸⁾	바람을 일으키다, 강 건너 불구경 하다, 입을 모으다, 손을 떼다, 목이 빠지다, 발을 빼다, 다리를 뻗고 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발목을 잡다, 배꼽을 잡다, 햇빛을 보다	불 보듯 뻔하다, 손을 대다, 귀에 못이 박히다, 등을 돌리다, 목소리를 높이다, 뿌리를 뽑다, 손발이 맞다, 김이 빠지다, 도마에 오르다, 간이 쿡알만해지다, 낮이 뜨겁다, 눈코 뜰 새 없다, 피눈물이 나다
III형	배가 아프다, 마음을 먹다, 손이 크다, 말이 아니다, 바람을 피우다	비행기를 태우다, 몸을 담다, 눈을 붙이다, 바람을 맞다, 장가를 가다, 국수를 먹다, 주머니가 가뻔다	몸살을 앓다, 무릎을 꿇다, 꼬리를 물다, 바가지를 쓰다, 바가지를 긁다, 기가 막히다, 오리발을 내밀다, 물이 들다, 한눈을 팔다, 한턱을 내다, 파김치가 되다

8) ‘한 배를 타다’와 대응되는 일본어 표현이 ‘同じ船に乗る(같은 배를 타다)’인데, 이 표현은 관용어 사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일반적인 비유표현으로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II형으로 분류하였다.

	A단계 어휘만으로 구성	A와 B단계 어휘로 구성	B단계 이상의 어휘로 구성
IV형	손을 놓다, 입이 썩다, 제 눈에 안경이다, 밑도 끝도 없다	칼을 갈다, 손을 내밀다, 귀가 얇다, 발을 벗고 나서다, 물 건너가다, 쥐도 새도 모르게	입에 침이 마르다, 울며 겨자 먹기, 등을 지다, 동이 나다, 애를 먹다, 애를 쓰다, 애가 타다, 담을 쌓다, 귀가 가렵다, 깨소금 맛이다, 깨가 쏟아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 있는 대학 교육 기관에서 1년간 한국어를 배운 중급 단계 학습자(한국어 능력 시험 3급, 4급 수준) 25명(20대 19명, 30대 6명)을 대상으로 2011년 9월 하순부터 1주일에 걸쳐 한국어 관용표현 인지도 조사를 직접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피험자가 중급 수준이기 때문에 A단계 어휘만으로 구성된 관용표현과 A단계와 B단계 어휘로 구성된 관용표현에 한정하여 각 유형에서 6개씩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예문에서 C단계 이상의 어휘가 나온 경우에는 일본어로 그 뜻을 첨부하였다. 총 24개의 항목⁹⁾에 대해 <부록>에서 제시한 것처럼 그 관용표현의 ‘직역’과 ‘실제 의미’를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피험자들의 이해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 후에 직접 또는 전화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¹⁰⁾

- 9)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학습자 25명을 대상으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일본인 30명을 대상으로 한 사토모(2002), 중국인 12명을 대상으로 한 박용배(2006), 일본인 40명을 대상으로 한 하수정(2006), 몽골인 22명을 대상으로 한 송현아(2008)등의 선행 연구와 비교해도 대상자 수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닐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제시된 관용표현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관용표현의 ‘직역’과 ‘실제 의미’를 기입해야 하고, 조사 후에 인터뷰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피험자들의 부담을 고려하면 문항수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닐 것이다.
- 10) 하수정(2006)에서는 답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단서를 주어진 항목에서 선택하도록 a) 밑줄 친 부분의 개별 어휘들의 의미 해석, b) 배경지식(자신의 경험)을 이용한 의미분석, c) 앞뒤 문맥의 상황으로부터의 추측, d) 의미가 유사한 일본어 모국어를 활용한 이해, e) 단순한 추측 등 다섯 개의 보기를 제시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IV.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도 조사 결과

실험 결과 전체 유형별 정답률은 <표 2>와 같다. 전체 정답률은 I 형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III형, II형, IV형의 순이었으며, III형을 제외하면 각 유형에서 어휘의 난이도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2> 전체 유형별 정답수

	I 형	II형	III형	IV형
A단계 어휘만으로 구성	74/75(98.7%)	41/75(54.7%)	58/75(77.3%)	19/75(25.3%)
A와 B단계 어휘로 구성	70/75(93.3%)	41/75(54.7%)	48/75(64.0%)	17/75(22.7%)
합계	144/150 (96.0%)	82/150 (54.7%)	106/150 (70.7%)	36/150 (24.0%)

I 형에서 <표 3>과 같이 4개의 관용표현의 정답률이 100%였고, ‘마음에 들다’도 1개의 오답이 나타났을 뿐이었다. 김애진(2009)에서 5 단계에 배치된 ‘손에 땀을 쥐다’도 다른 유형의 관용표현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표 3> I 형 항목별 정답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25/25(100.0%)	2단계 ¹¹⁾
마음에 들다	24/25(96.0%)	3단계
입이 가볍다	25/25(100.0%)	2단계
입에 맞다	25/25(100.0%)	2단계
한잔 하다	25/25(100.0%)	3단계
손에 땀을 쥐다	20/25(80.0%)	5단계

문항1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에서 ‘넣다’를 모르는 피험자가 2명, ‘놓다’와 착각한 피험자가 2명 있었으나 실제 의미에서는 정답률이 100%

11) <표 3>에서 <표 6>의 단계는 김애진(2009)에서 제시된 최종 학습 단계를 나타낸다. 2단계는 초급, 3단계와 4단계는 중급, 5단계는 고급을 나타낸다.

였다. 인터뷰 결과 사용해본 적이 있던 피험자는 거의 없었으나, 직역 단계에서 이해한 것을 예문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 문항2 ‘마음에 들다’에서 유일한 오답이 ‘마음’을 ‘言葉(언어/말)과 착각한 경우였다. 피험자들의 말로는 직역한 단계에서 바로 알았기 때문에 예문은 참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고, 회화에서 사용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있어서 친숙한 표현이었다고 한다. 문항3 ‘입이 가뻐다’에서 어휘를 모르는 피험자는 없었고, 사용해본 적은 거의 없으나 친숙한 표현이라서 직역한 단계에서 바로 알았다고 한다. 문항13 ‘입에 맞다’와 문항14 ‘한잔 하다’에서 어휘를 모르는 피험자는 없었고, 두 표현 모두 많이 사용해본 표현이라 직역한 단계에서 바로 알았다고 한다. 문항15 ‘손에 땀을 쥐다’에서 ‘땀’을 모르는 피험자가 1명, ‘쥐다’를 모르거나 ‘か<(땀을 흘리다)>’라고 대답한 피험자가 11명 있었다. 피험자의 대부분이 ‘쥐다’라는 동사는 자신이 없었으나 ‘손’과 ‘땀’을 보고 일본어 관용표현 ‘手に汗を握る’를 연상했고, 예문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

II형에서 <표 4>와 같이 A단계 어휘만으로 구성된 ‘한 배를 타다’의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B단계 어휘가 포함된 ‘입을 모으다’의 정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 배치에서 ‘발목을 잡다’가 4단계에 배치된 관용표현과 비슷한 정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II형 항목별 정답수

손을 쓰다	16/25(64.0%)	3단계
눈에 불을 켜다	16/25(64.0%)	3단계
한 배를 타다	9/25(36.0%)	4단계
입을 모으다	18/25(72.0%)	3단계
발목을 잡다	12/25(48%)	3단계
다리를 뺨고 자다	11/25(44.0%)	4단계

문항4 ‘손을 쓰다’에서 어휘를 모르는 피험자는 한 명도 없었으나 문맥상 판단해서 ‘よく考える(잘 생각한다), 謝る(사과한다), 摸索する(모색한다)’ 등의 오답이 나왔다. 대조 연구에서는 ‘손을 쓰다’는 ‘手を回す(손을 돌리

다'나 '手を打つ(손을 치다)'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험 결과 '手を回す'가 3명, '手を打つ'가 8명, 그 외에 '手をつくす(온갖 수단을 쓰다)'나 '手段を講じる(수단을 강구하다)' 등의 답이 있었다. 문항5 '눈에 불을 켜다'에서 '불'을 모르는 피험자가 2명, '켜다'를 모르거나 자동사 'つく(켜지다)'를 쓴 피험자가 5명 있었다. 이 표현은 대조 연구에서 '目を皿のようにする(눈을 접시처럼 하다)'나 '目を光らす(눈을 빛내다)'로 번역되지만 '目を皿のようにする'라고 대답한 피험자는 2명, '目を光らす'라고 대답한 피험자는 1명뿐이었으며, 대부분의 피험자가 '血眼になる(혈안이 되다)'를 기입하였다. '눈'을 '目'과 대응시키지 않고 '눈'과 '불'을 보고 '血眼'을 연상하였다고 한다. 문항6 '한 배를 타다'에서 오답의 원인이 '한 배'의 '한'에 있었다. '한'을 '하다'의 관형사형으로 이해한 경우, '어느/어떤'이나 '한 번'으로 이해한 경우, '한 척'이라고는 알았지만 '같은 배'라고 연상이 안 된 경우가 있었다. 정답자의 대부분이 '同じ船に乗る(같은 배를 타다)'라고 기입하였다. 문항16 '입을 모으다'에서 모든 피험자가 '모으다'를 '集める'라고 직역하였으며, 정답의 내용을 보면 '口をそろえる(입을 맞추다)'로 대답한 피험자가 12명, 그 외에 '口々に(제 각기 말하다)', '異口同音に(이구동음으로)'였다. 피험자들의 말로는 직역 단계에서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예문을 참고하고 나서 '集める'와 'そろえる'가 연상되었다고 한다. 문항17 '발목을 잡다'에서 오답자의 대부분이 '발목'을 몰라서 이해가 안 되었다고 한다. '足を引っ張る(발을 당기다)'로 대답한 피험자는 6명이었고 나머지는 '邪魔をする(방해하다)'로 대답하였다. 문항18 '다리를 뺀고 자다'에서 '뺀다'를 아는 피험자가 7명은 모두 정답이었으며, 나머지 4명의 정답자는 문맥과 '자다'를 단서로 답을 맞추었다고 한다. 정답자의 답은 '枕を高くして寝る(배개를 높이고 자다)'가 5명, 나머지는 '安心して眠る(안심하고 자다)'였다.

Ⅲ형에서 4단계에 배치된 '바람을 피우다'와 5단계에 배치된 '마음을 먹다'가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초급인 2단계에 배치된 '배가 아프다'가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표 5〉 Ⅲ형 항목별 정답수

배가 아프다	13/25(52.0%)	2단계
마음을 먹다	23/25(92.0%)	5단계
바람을 피우다	22/25(88.0%)	4단계
비행기를 태우다	14/25(56.0%)	4단계
눈을 붙이다	15/25(60.0%)	4단계
주머니가 가볍다	19/25(76.0%)	5단계

문항7 ‘배가 아프다’에서 오답은 대부분 ‘胃が痛い(위가 아프다)’로 이해하고 있다. 정답자는 대부분 ‘悔しい(분하다)’라고 기입하였는데, 문맥상 추측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정답자들 말로는 일본어 ‘悔しい’는 ‘분하다, 억울하다, 속상하다’ 등 여러 한국어와 대응되는데, 남이 잘 되어서 질투가 날 상황에서 느끼는 ‘悔しい’를 ‘배가 아프다’와 대응시켜서 외웠다고 한다. 문항8 ‘마음을 먹다’에서 오답자는 2명뿐이었는데, 1명은 문항2 ‘마음에 들다’에서 ‘마음’을 ‘言葉(언어/말)과 착각한 피험자이고, 나머지 1명은 ‘마음을 먹다’를 ‘마음에 들다’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정답자의 대부분이 ‘決心する(결심하다)’라고 기입하였으며, 이 표현은 일본어 동사와 대응시켜서 외웠다고 한다. 문항9 ‘바람을 피우다’에서 오답자는 ‘피우다’를 ‘避ける(피하다)’로 착각해서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하였다. 정답자는 모두 ‘浮氣する’라고 기입하였으며, ‘浮氣する’를 한국어로 표현할 때 ‘바람을 피우다’ 외의 다른 표현을 모를 정도로 익숙한 표현이라고 한다. 문항19 ‘비행기를 태우다’에서 오답자는 모두 ‘태우다’를 모르거나 ‘燃やす(불에 태우다)’로 이해하여 전혀 다른 의미로 대답하였다. 정답자의 대부분이 ‘おだてる(부추기다)’라고 기입하였으며, ‘비행기를 태우지 마세요.’의 형식으로 사용해본 적이 있는 정답자가 많았다. 문항20 ‘눈을 붙이다’에서 어휘를 모르는 피험자는 없었으며, 오답자의 대부분이 ‘目を閉じる(눈을 감다)’와 착각하였고, 정답자의 대부분이 ‘一眠りする(한잠자다)’라고 기입하였다. 문항21 ‘주머니가 가볍다’에서 ‘주머니’를 모르는 피험자가 7명이었다. 모두 평소에 ‘지갑’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어휘는 몰랐다고 한다. ‘주머니’를 아는 피험자는 모두 정답이었으며, 대부

분 ‘お金がない(돈이 없다)’라고 기입하였다.

IV형에서는 정답률이 높은 가장 관용표현조차도 40% 밖에 안 될 정도로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초급인 2단계에 배치된 ‘칼을 갈다’의 정답률은 36.0% 밖에 안 되었고, A단계 어휘만으로 구성된 ‘밀도 끝도 없다’의 정답자는 2명, 3단계에 배치된 ‘물 건너가다’의 정답자는 단 1명뿐이었다.

〈표 6〉 IV형 항목별 정답수

입이 짧다	10/25(40.0%)	4단계
밀도 끝도 없다	2/25(8.0%)	4단계
손을 놓다	7/25(28.0%)	4단계
칼을 갈다	9/25(36.0%)	2단계
물 건너가다	1/25(4.0%)	3단계
귀가 얇다	7/25(28.0%)	4단계

문항10 ‘입이 짧다’에서 ‘짧다’의 오답은 5개였으나 정답수는 10개뿐이었다. 대부분의 피험자가 답을 쓰지 못했는데 어휘는 알지만 예문을 보고도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문항11 ‘밀도 끝도 없다’에서 ‘밀’과 ‘끝’을 모르는 피험자는 9명씩 있었는데, 어휘를 아는 경우에도 예문을 봐도 전혀 이해가 안 되었다고 한다. 문항12 ‘손을 놓다’에서 ‘놓다’를 ‘はなす(잡고 있는 것을 놓다)’로 이해한 사람은 1명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おく(두다)’의 뜻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오답자가 완전히 반대인 ‘계속하다’를 연상하였는데, 예문과 맞지 않아서 어려웠다고 하였고, 만약 ‘놓다’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연상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정답수는 7개 밖에 없었는데, ‘놓다’를 ‘はなす’로 이해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은 예문의 문맥상 추측해 기입하였다고 한다. 문항22 ‘칼을 갈다’에서 ‘갈’을 모르는 사람이 9명, ‘갈다’를 모르는 사람이 11명이 있었고, 어휘를 아는 경우에는 거의 정답이었으나 대조 연구에서 ‘칼을 갈다’가 ‘ねたばを合わす(무디어진 칼날을 맞추다)’로 번역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이 답을 쓴 사람이 없었고, 이 일본어 관용표현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문항23 ‘물 건너가다’에서 ‘건너가다’를 모르는 사람이 9

명이 있었고, 어휘를 아는 경우에도 예문을 보고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문항24 ‘귀가 얇다’에서 ‘얇다’를 아는 12명 중에서 정답자는 7명이었으며, 나머지 6명은 어휘가 나타내는 이미지와 문맥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 유형별로 정답률과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I 형처럼 한국어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어휘와 일본어 어휘가 1대 1로 대응되고, 대응되는 일본어 관용표현이 한국어 관용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피험자들은 거의 완벽하게 맞추었으며, 정답자들은 이해과정에서 예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역한 단계에서 바로 이해하였다. 둘째, II형과 같이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일부 어휘가 공통된 것에 대한 인지도는 절반 정도 밖에 안 되었고, 대조 연구처럼 피험자들이 반드시 한국어 관용표현과 일본어 관용표현을 대응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 용언과 연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답자들은 이해과정에서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어휘 중에서 아는 어휘의 뜻과 예문의 문맥을 사용해서 대응되는 일본어 관용표현과 연결시켜서 이해하였다. 셋째, 선행 연구에서 한국어에만 있는 관용표현으로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한다고 생각되었던 관용표현 중에서 일본어의 동사나 형용사가 대응되는 경우에는 피험자들이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았다. 피험자들은 이 유형에 속하는 관용표현을 이해할 때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어휘를 일본어와 대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용표현과 일본어 용언을 대응시켜서 이해했으며, 정답자들은 대부분 예문의 도움을 받지 않고 관용표현 자체를 보고 바로 대답하였다. 넷째, 일본어에는 대응되는 관용표현이나 동사가 없고, 한일사전에는 설명만 되어 있는 관용표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정답자는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어휘의 이미지와 예문의 문맥을 사용해서 추측해서 답하였으며, 모어의 도움은 받지 않았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전체 교육용 관용표현을 학습 단계별로 배열할 때의 기준이 되어온 한국어와 학습자 모어 관용표현의 유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유형과 이유를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전체 교육용 관용표현을 학습 단계별로 배열할 때의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교육기관마다 교육 대상자와 교육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중심으로 교수요목을 설계하는냐에 따라 전체 교육용 관용표현의 수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같은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공통된 학습 단계별 교육용 관용표현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표 2>를 전체 교육용 관용표현으로, 학습 단계를 초급(1, 2급), 중급(3, 4급), 고급(5, 6급)을 설정하여 4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단계별로 분류하도록 하겠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습 단계별로 배열할 때의 기준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사용 빈도, 구성 어휘의 난이도, 관용표현의 유사성 등이다. 이중 사용 빈도에 관해서는 Li Shun Fu(2011 : 64)의 지적대로 전체 교육과정 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빈도수가 높다고 해서 이를 초급에 선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휘의 난이도와 유사성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 관용표현을 가르치기에 앞서 반드시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어휘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관용표현이 지닌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용표현을 구성하고 있는 1차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A단계 어휘만으로 구성된 I형 7개를 배열하고, 3단계에서는 A와 B단계로 구성된 I형 6개, A단계 어휘만으로 구성된 III형 5개와 A와 B단계로 구성된 III형 7개 총 18개, 4단계에서는 A단계 어휘만으로 구성된 II형 8개, A와 B단계로 구성된 II형 11개, I형 중

에서 B단계 어휘로만 구성된 ‘땅에 떨어지다’와 ‘혀를 차다’, III형 중에서 B단계 어휘로만 구성된 ‘몸살을 앓다’와 ‘무릎을 꿇다’ 등 총23개, 5단계에서는 A단계 어휘만으로 구성된 IV형 4개, A와 B단계로 구성된 IV형6개, I형 중에서 C단계 어휘가 포함된 9개 등 총19개, 나머지 33개는 6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분류는 어디까지나 모델에 불과하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그 날의 수업에서 학습 목표에 관용표현이 안 들어 있을 때도 필요할 때는 가르치는 것이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말하기나 쓰기에서 학습자가 표현하고 싶은 모어 표현과 대응되는 한국어 용언이 사전에 있긴 하지만 학습자에게는 어휘의 난이도가 높아서 부담이 될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 만약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어휘가 더 낮은 단계에 있다면, 관용표현을 소개하는 것이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전체 교육용 관용표현의 목록 선정은 한국인의 사용빈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언어권의 학습자에게도 교육 목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목록으로 선정된 관용표현을 어느 순서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는 학습자의 언어권이나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앞으로 언어권별로 어휘 수준을 통일시켜서 기입식으로 학습자의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여 학습 단계별 기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11. 10. 29. 투고되었으며, 2011. 11. 03. 심사가 시작되어 2011. 12. 1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권순영(2005), “한국어 감정관련 관용표현의 수업지도 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해(2001), “한국어의 등급별 총어휘 선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명춘(2008), “한국어 신체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부경(2005),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정·강현자(2006), “한국어 관용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단위 제시”, 『이중언어학』 제32호, 35-56쪽, 이중언어학회.
- 김애진(2009),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교육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2010), “외국어로서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 대불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관용표현 연구”,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2007),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i Shun Fu(2011), “중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관용표현의 단계별 목록 선정 방안 연구—신체어 ‘손’과 ‘발’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금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이중언어학』 제15호, 207-233쪽, 이중언어학회.
- 박소연(2008),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수·학습 모형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배(2006),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법 연구—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규범(2010),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관용어 교육의 실상과 방향—목록 선정과 단계별 배치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제21권 3호, 77-104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사모토 마리(2002),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동사형 관용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현아(2008), “몽골인을 위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혜원(2005), “한국어 교재의 관용표현 분석과 지도방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유덕자(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어 교육”,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지훈(2008), “외국어로서 한국어 어휘 지도 방안—관용표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숙(2007), “관용표현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반의현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혜진(2007), “학습자 수준별 관용표현 교수항목에 대한 연구—의미투명도와 사용빈도를 바탕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정정(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의 수준별 목록 선정 방법”, 대불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조윤경(2005), “한국어 교육에서의 관용어 평가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혜영(2001), “한국어 관용 표현의 교육방향”, 『한국어 교육』 12-2, 181-199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최혜령(2007),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 지도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수정(2006),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신체 관용어 이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주승(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 강릉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초록>

학습 단계별 한국어 관용표현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와다 히로유키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같은 어휘 수준으로 구성된 관용표현을 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관용표현의 직역과 실제 의미를 쓰게 하는 조사를 통해서 피험자가 어려워하는 유형과 그 이유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한국어 관용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일본어 관용표현 사이에서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어휘가 1대 1로 대응되는 경우 96.0%로 인지도가 매우 높았다. 둘째,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일부 어휘가 공통된 것에 대한 인지도는 54.7%밖에 안 되었고, 피험자들은 반드시 한국어 관용표현과 일본어 관용표현을 대응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관용표현을 일본어 용언과 연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한국어에만 있는 관용표현 중에서 구성하는 어휘가 일본어의 용언과 대응되는 경우의 인지도는 70.7%로 피험자들이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았다. 넷째, 일본어에는 대응되는 관용표현이나 용언이 없고, 한일사전에는 의미설명만 되어 있는 관용표현에 대한 인지도는 24.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핵심어】 학습 단계별 한국어 관용표현, 관용표현의 유사성, 구성 어휘의 난이도, 구성 어휘의 대응, 일본어 모어 학습자, 인지도 조사

<Abstract>

Study on Standard of Selecting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by Learning Stage

—Targeting Japanese Native Learners—

Hiroyuki Sawada

This study classified the idiomatic expressions, which were formed with the same vocabulary level, into 4 types, targeting Japanese native learners, and verified on type and its reason for which the subjects feel difficult, through a survey of allowing them to write the literal translation and actual meaning of each idiomatic expression. As a result, the following facts could be known.

First, when vocabulary of forming idiomatic expression is corresponded with 1:1 between Japanese idiomatic expressions of indicating the same meaning as Korean idiomatic expression, the recognition level was very high with 96.0%. Second, the recognition level on what some vocabularies of forming idiomatic expression are common accounted just for 54.7%. It is not that the subjects understand certainly by allowing Korean idiomatic expression and Japanese idiomatic expression to be corresponded, but that there was also a case of connecting Korean idiomatic expression with Japanese declinable word. Third, the recognition level when the vocabulary of being formed out of idiomatic expressions just in Korean language is corresponded with Japanese declinable word accounted for 70.7%. Thus, subjects didn't feel so difficult. Fourth, the recognition level on idiomatic expression, which doesn't have idiomatic expression or declinable word of being corresponded in Japanese language, but is semantically described in

Korean-Japanese dictionary, accounted for 24.0%, thereby having been indicated very lowly.

【Key words】 Korean idiomatic expression by learning stage, Similarity in idiomatic expressions, Difficulty level in composition vocabulary, Correspondence of composition vocabulary, Japanese native learner, Recognition survey

【부록】

記入上の注意

◎ 絶対に辭書は見ないで下さい

◎ 制限時間は45分です。

◎ 各例文を参考にして以下のように記入して下さい。

・ 발이 넓다 直譯(足力廣い) 實際の意味(顔が廣い: 知り合いが多い)

◎ 單語が分からない場合は「一」を記入して下さい。

「발」が分からない場合 直譯(一か廣い) 「넓다」が分からない場合 直譯(足がー)

◎ 日本語に該当する慣用句がある場合は「實際の意味」の欄に日本語の慣用句も記入してください。

(1)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미진 씨는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해요.

(2) 마음에 들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옷을 사러 갔지만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서 안 샀어요.

(3) 입이 가볍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미진 씨는 입이 가벼워서 비밀을 안 지켜요.

(4) 손을 쓰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문제가 커지기 전에 손을 쓰는 게 좋을 거예요.

(5) 한 배를 타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이 일이 싫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한 배를 탔으니까 잘해 봅시다.

(6) 눈에 불을 켜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미진 씨는 잃어버린 반지가 비싸다는 것을 알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었어요.

(7) 배가 아프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똑같이 공부했는데, 친구만 시험에 붙어서 배가 아파요.

(8) 마음을 먹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요즘 살이 많이 쪼서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9) 바람을 피우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미진 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결국 이혼했어요.

(10) 입이 짧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미진 씨는 입이 짧아서 가리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11) 밑도 끝도 없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친구가 밑도 끝도 없이 내 여자친구에 관해 물어 당황했어요.

(12) 손을 놓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오랫동안 피아노 연습에 손을 놓았더니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요.

(13) 입에 맞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한국 음식은 제 입에 맞아서 매우 좋아해요.

- (14) 한잔 하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오늘 퇴근 후에 시간이 되면 한잔 합시다.
- (15) 손에 땀을 쥐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어제 야구 경기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어요.
- (16) 입을 모으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사람들이 입을 모아 미진 씨에 대한 불만을 말했어요.
- (17) 발목을 잡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어제 제주도에서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발목을 잡았어.
- (18) 다리를 뺀고 자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잘 되든 못 되든 이 일이 끝나야 다리를 뺀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 (19) 비행기를 태우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저한테 한국어를 잘한다고 비행기를 태우지 마세요.
- (20) 눈을 붙이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운전을 하다가 졸릴 때는 차를 세워서 잠깐 눈을 붙이세요. * 졸리다: 眠たい
- (21) 주머니가 가볍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사고 싶은 옷이 있지만 주머니가 가벼워서 못 사요.
- (22) 칼을 갈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미진 씨는 합격을 위해 지난 1 년간 칼을 갈았어요.
- (23) 물 건너가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그 계약은 조건이 안 맞아서 벌써 물 건너갔어요.
- (24) 귀가 얇다 直譯() 實際の意味()
 例文) 그녀는 귀가 얇아서 점원이 예쁘다고 하면 무조건 사요.